

함께 즐거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 : 15

353

2015. 8.30

2015년 주님의교회 표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 : 8)

오늘의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열을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13)

오늘의 주요기사

- 2 사명특집
- 4-9 2015 비전트립 보고
- 10 창립27주년 기념 지상토론
- 11 목회칼럼
- 12 킹덤비전영어캠프

교회 일정

- 8/30 (주일) 1차 겨자씨인도자 수련회
- 9/1(화) 예친사 2학기 개강,
늘푸른대학 개강
- 9/2(수) 겨자씨 인도자 교육 시작,
어린이 영어예배 개강
- 9/4(금) 겨자씨 모임 및 교구별
기도회 시작
- 9/6(주) 성찬주일,
2차 겨자씨인도자 수련회
- 9/7(월) 시찰회(주님의 교회)
- 9/8(화) 양육클래스 개강
12단계 경경공부 개강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tv.org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 일꾼을 뽑는 2015년 향존직 선거가 8월 23일, 그 첫번째 단계인 추천 투표로 시작되었다.

막 오른 2015년 향존직 선거

2015년 향존직 선거가 8월 23일 추천 투표를 시행하면서 시작되었다. 향존직(장로,안수집사,권사)은 교회법상 교회의 직원으로써 소속 교회의 일꾼이며 기둥을 일컫는다. 향존직은 교회 구성원 모두의 의사가 반영되어 선출하는 것이 마땅하여, 전교인의 모임인 공동의회에서 선거로 뽑는 것이 기본적 원칙이다. 공동의회 선거는 각 교회의 사정에 따라 통상 2,3차례의 투표를 실시하는 데, 첫 투표는 후보자 추천의 성격을 띠게 되며, 이후 이어지는 선거에서 후보자를 압축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주님의교회도 이러한 틀 안에서 당회의 공천을 거쳐 전교인의 2차에 걸친 직접선거로 향존직을 선출하고 있다. 다만, 주님의교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당회가 공천함에 있어, 공천의 공정성, 숨은 일꾼의 발굴, 기존 향존직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그 후보자를 교회의 리더 그룹인 중직 직분자들 (향존직, 겨자씨인도자, 제직부서장 등)의 추천을 받아 그 추천자를 대상으로 공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추천제도의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 공천 투표에서는 몇가지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①무기명 투표 ②무토론 ③공천투표 대상자는 향존직의 추천을 받은 성도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선거제도가 “향존직 등의 추천>당회원의 공천>공동의회의 선거”라는 틀로 정립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교회 안팎의 사례를 검토하고, 되도록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 적합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많은 개선과 변화과정을 거쳤다. > 3면에 계속

2015년 비전트립, 땅 끝까지 함께 한 하나님

베트남, 케냐, 키르키즈스탄, 헝가리, Z국에서 다양한 활동 펼쳐

2015년 비전트립이 지난 7월에서 8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베트남, 헝가리, 키르키즈스탄, 그리고 케냐 등 4개국과 북한선교와 관련한 마중물 선교 등 5개국의 비전트립이 계획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케냐는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하고 후원물품만 보내었다. 베트남은 총 30인의 팀원이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의 4박 6일의 일정으로 호치민 서남부의 빈롱성 붕림군 편안롱면을 중심으로 의료, 집짓기 및 어린이 사역을 진행했다. 키르키즈스탄에서는 주로 KKC(키르키즈스탄한국대학)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가르쳐주는 한국무용교실, 한국요리교실, 그리고 수공예교실 등이 진행되었다. 15명이 참여한 헝가

리 팀은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9박 10일의 기간동안 헝가리 개혁교회 청년수련회 및 종교개혁지 답사 등의 다양한 일정들을 소화했으며, 청년부에서 주관하는 Z국의 비전트립은 북한 탈북청소년을 위한 섬김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 4-9면에 계속

2015년 사명 특집 : 어린이 섬기는 일에 평생을 바친 유수형 선생님

따뜻한 가슴으로 ‘교회의 미래’를 품다

어린이는 나라의 기둥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을 찾는 함글함글 팀의 안테나에, ‘교회의 미래’를 꾸준히 섬겨온 한 분이 포착되었다. 십여 년 이상 유치부에서 평교사로 섬겨온, 육순이 넘은 남자어르신, 유수형 선생님이 그분이다.

언제부터 어린이를 섬기신 건지요?

“결혼하기 전부터였던 것 같네요. 잠실 화광교회에서 17년간 유초등부와 아동부 교사로, 부장으로 섬겼습니다. 봉고차를 하나 사서, 초등학교 앞에서 사랑을 나누어 주며 전도를 하기도 했지요.”

그이는 부인 민현식 집사와 함께 어린이를 150명이나 전도해서 금방 교계에 소문이 났다. 기독교 방송의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나가서 어린이 전도에 대해 간증을 했고, 방송 덕분에 한 동안 이회호 여사가 다니던 창천감리교회 등 여러 교회에서 간증을 했다. 화광교회에서 장로 안수도 받았다.

주님의교회에 오시자마자 유치부를 찾으셨다면요.

“2002년부터 주님의교회를 다녔는데, 등록하자마자 유치부에서 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기들



을 좋아할 뿐더러, 6~7세의 어린이에게 전도를 하면, 일생 동안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유아심리학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마음 받아 깨끗한 어린이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가장 좋은 일 아닐까요?”

그런 생각에 처음부터 다른 사역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몇 년이나 섬기셨냐는 질문에, 굳이 세월을 세지 않는다는 현답이 왔다.

유치부 교사에게 필요한 자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유치부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설교를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입

니다. 아침에 보자마자 사랑으로 안아 주는 마음만 있으면 유치부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선생님의 품을 통해 느끼기 때문이지요.”

한참 뛰어 놀 이 개구쟁이들을 지도하는 비결이 있다. 아이들은 똑같은 것을 오 분 이상 하면 지루해 한다.

찬양하고 만들기하고 간식 먹고 기도도 하면서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이 재미있어 한다. 물론 율동도 한다.

“잘은 못하지만, 아기들 앞에서 함께 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보고 예쁘다고 합니다. (웃음)”

오랜 섬김에 보람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은혜로 섬기는 것이 감사할 뿐이지요. 한번은 화광교회 초등부에서 가르쳤던 어린이가 결혼을 하면서 청첩장을 보내 왔길래, 신부대기실에 가서 축하해주었어요. 나중에 주님의교회 유치부로 아기를 데리고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군요.”

언젠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어 노는 어린이에게 사탕과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전도를 했다. 구역장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어린이와 대화를 하다, 실직해서 좌절에 잠겨 있던 부모를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다. 그때 어린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같은 인상인데, 쌀 도매업을 삼십여 년 간 해왔다.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생업이고, 영혼의 양식 공급이 주님의 일인 셈이다. 인터뷰 끝에, 함글함글을 모두 집에 보관하고 있다면서, 이 좋은 신문을 성도들이 꼭 읽고, 한 부씩 가져다가 이웃집 우편함에 넣어 주면 어떨까 제안했다. “이 신문 하나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맑고 깨끗한 홍안이 어떤 젊은이보다도 아름다웠다.

함글함글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78

聖幕器具 (성막기구)中 言約櫃 (언약궤)

사십 주 사십 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신명기 9장 1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묵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민수기 18장 19)

言約(언약, covenant)의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간의 약속.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격적으로 맺으신 구원언약(testament)이 중심주제이다. 한편 구약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언약의 형태로는 ① 계약 당사자 모두 그 동의된 내용을 받아들이는 쌍방언약, ② 유력한 쪽에 의해 부과되는 일방언약, ③ 죄인들을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 부과하신 의무가 있다.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救贖(구속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된다. 言約櫃(언약궤)는 證據櫃(증거궤) 또는 法櫃(법궤)로 부르기도 한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言(말씀 언) : 날카롭다, 분명하다는 뜻이 있는 辛(찌를 건)과 口(입 구)를 합쳐 ‘찌르듯 날카롭고 분명하게 입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말씀이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졌다.

★約(맺을 약) : 실이나 옷감의 총칭인 糸(실 먹, 실 사)에 작거나 분명함을 뜻하는 勺(작을 작)을 합쳐 ‘실 끝을 작고 분명하게 묶어 매듭짓는다. 이처럼 말하여 약속한다’는 글자가 되었다.

★櫃(궤짝 궤, 상자 궤) : 나무를 켜 판자 木(나무 목)과 감춘다는 뜻의 匸(상자 방, 큰 입구 몸)과 귀중품을 뜻하는 貴(귀 할 귀)를 결합하여 ‘나무판자로 만들어 귀중품을 감추어두는 기구가 궤짝이

섬기는 손 23



국수는 육신의 양식
말씀은 영혼의 양식
책은 마음의 양식
무더운 여름 날 도서관에서
마음의 양식 정리하는 귀한 손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글함글

사역소식

2015 교구 활성화 사역

교구중심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활동을 소개합니다

2015년 주님의 교회 핵심적인 단어를 찾아보라면 “교구집중(활성화)”과 “사명”이다.

이를 위해 1단계 연초 ‘사명자 대회’를 통해 겨자씨가 다시금 모이기에 힘썼고, 겨자씨마다 사명을 다짐해 보았다. 그리고 전성도 예친사 1단계 교육을 통해 2단계를 교구 목사와 함께 할 준비를 하였다.

이후 2단계로 40일간의 사명여정을 마치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전체에서 교구 중심의 활동으로 변화하였다.

금요기도회가 각 교구별로 진행되었고, 겨자씨 인도자 교육도 교구목사가 담당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게 하였고, 예수친구사역도 교구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교구목사와 교구식구들간의 충분한 공동체성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여름 수련회는 비록 교구별로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출애굽부터 십자가의 길까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으로 가졌다.

이제 하반기는 3단계로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고 더욱 강화될 것이다.

먼저 전반기에 했던 교구 중심의 사역들(교구별 금요기도회, 교구목사와

또한 사명이 본격적으로 겨자씨를 통해 실천되어 친교중심에서 사명중심의 겨자씨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한 달에 한 번(마지막 주)은 사명 실천 주간으로 성경공부, 사명 나누고 기도하기, 사명실천하기등이 진

하며 실천해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사역박람회 때는 겨자씨 관심 사역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교회 내 또는 교회 밖의 사역팀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하고, 참여하게 하며, 새생명 축제는 겨자씨가 함께 겨자씨 가족들 중에서 전도할 대상자를 작정하고 함께 전도해 보면서 사명을 실천해 볼 것이다.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각 교구와 겨자씨가 좀 더 활성화 되는 한해가 되길 바라며, 내년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교구 목사뿐 아니라 교구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구 핵심 리더십이 형성되어, 교구를 향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사역방향을 설정하고, 제반 여건들을 마련하면서 주님의 교회의 모든 교구와 겨자씨가 활성화되고, 사명중심의 교구와 겨자씨가 되길 바란다.

장수현 목사

2015년 하반기 교구 활성화 사역(3단계)

1. 교구 집중사역

- ▶교구별 금요기도회(1~3주)
- ▶교구 목사와 함께 하는 겨자씨 인도자 교육(수요일)
- ▶교구별 예친사 교육(화요일)

2. 겨자씨별 사명 실천하기 : 사역박람회와 새생명 축제와 연계

- ▶ 9월 _ 겨자씨별 사명 생각하기(겨자씨 사명적기, 기도하기)
겨자씨별 전도대상자 작정하기(겨자씨 안에 믿지 않는 식구들 중심으로)
- ▶10월 _ 사명실천하기1(사역박람회에서 함께 사역팀 만나기)
전도대상자 1차 접촉하기(친해지기-식사초대등)
- ▶11월 _ 사명실천하기2(겨자씨가 함께 사역하기)
전도대상자 2차 접촉하기(마음나누기-선물, 편지쓰기등)
- ▶12월 _ 사명실천하기3(새생명 축제에 초대하기)

함께 하는 겨자씨 인도자 교육, 예친사 교육)이 계속되면서 좀 더 구체화되고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행될 것이다.

무엇보다 사역박람회와 새생명 축제를 겨자씨가 사명으로 함께 참여

2015 향존직 선거

주님의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많은 참여 필요

>1면에서 계속

타 교회가 향존직의 임명제, 당회 선출제, 후보자의 일괄 기표제, 담임목사가 명단을 제시하고 형식적인 가부를 묻는 형식 등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음에 비추어, 주님의교회 선거제도는 어느 정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라고 보인다.

만일 이러한 단계를 거친 후보자 없이 바로 공동의회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표가 분산되고 후보자가 난립하는 상황 때문에, 예상치 않은 위험스러운 사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즉, 공동의회 1차 선거에서 소수의 득표로도 상위 순위를 차지할 수 있으며, 그 후 이어지는 2,3차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될 터, 만약 어떤 특정한 집단(?)이 특정한 목적을 가

지고 집중 투표를 하는 경우, 공동체 구성원이 지향하는 방향과 다른 왜곡되고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위험이 타 교회의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보통 1차 추천에서는 나이, 등록일자, 수세일자, 봉사경력 및 기타 개인적 평가가 주된 고려사항이 된다. 당회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천에서는 위의 항목 외에 교회의 참된 일꾼을 선출한다는 관점에서, 추천인수에 더하여, 종합적인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된다. 향존직이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써, ① 목양프로그램 참여 여부 ② 교회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 ③ 신앙의 기본자세(십일조, 주일성수 등) ④ 신앙의 건전성(이단사이비 연루 등) ⑤ 인격적 성숙도(도덕성, 책임감, 평판, 섬김의 자세 등) ⑥ 식견과 통솔력(리더십, 술선

수범) ⑦ 기타, 질서문란 행위(화목저해, 갈등 조장) 여부 등이 고려의 대상이다.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도 완전하지 않듯, 주님의교회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현행 제도에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 모두의 참여 정신이다. 앞에서 말한 모든 부작용은, 사실상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지 않을 때 소수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주님의교회 선거제도가 계속 변천해 온 것도, 이러한 부작용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한 노력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올해의 향존직 선거, 성도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까닭이다.

함글함글

주님의교회 선거제도 변천

2006년 이전

특별한 추천제도 없음
(당회원이 개별적으로 추천)

2006년 ~ 2007년

- 장로는 당회원이 10명씩 추천
- 권사, 안수집사는 봉사, 등록, 성경공부, 연령등을 가중, 평가하여 추천 이를 당회가 논의를 거쳐 최종 공천자로 확정

2008년

향존직이 기도회를 통해 후보자 추천

2009년 ~ 2013년

향존직이 투표 방식을 통해 후보자 추천

2014년

- 제직부서장, 겨자씨인도자 추천자격 추가
- 당회원은 추천에 참여하지 않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베트남, 케냐, 코스타리카, 헝가리, Z국

비전트립에는 항상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가지는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어른들 뿐 아니라 학생들의 소감문에서 “내가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의 해외 선교 현황

우리 교회는 베트남, 코스타리카, 헝가리, 그리고 키르기스스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세계 각지의 선교사를 방문하고 격려하는 순회선교사가 있습니다. 베트남과 케냐, Z국 등에 협력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에 1명의 견습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파송선교사는 우리 교회의 후원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파송을 한 선교사를 말하고 협력선교사는 우리 교회가 주 후원교회는 아니나 얼마간의 지원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협력하며 선교하는 선교사를 말합니다.

선교사를 지원하는 업무는 해외선교분과위원회가 하고 있으며, 해외선교분과위에는 동남아팀, 미주유럽팀, 중앙아시아팀, 아프리카팀, 중보기도팀, 그리고 행정총괄팀 등 6개의 팀이 있습니다.

비전트립이란 간단히 말해서 타문화권 선교의 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현지의 선교사를 지원하고,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여행입니다.

2015년에는 베트남, 헝가리,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케냐 등 4개국과 북한 선교와 관련한 마중물 선교 등 5개국의 비전트립을 계획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케냐는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하고 후원물품만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은 비전트립 타문화권의 선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이 다르고 문화와 전통이 다르고 법규가 다릅니다. 일례로 베트남에는 신앙의 자유는 있으나 선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는 신앙의 자유도 없고 선교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곧바로 체포되거나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여러 가지 어렵고 위험한 환경 하에서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대신 힘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중보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다른 문화권에서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나눌 때 마음과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이 전달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그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구나라고 느끼게 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비전트립에는 항상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가지는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어른들 뿐 아니라 학생들의 소감문에서 “내가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신비를 경험하면서, 그 느낌을 간직하고 전하고 싶은 강한 소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비전트립이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2015년 비전트립 현황

베트남에서는 의료사역, 집짓기 사역, 풍선아트, 복지센터의 고아 방문, 교과서전달, 후원교회 방문을 통한 학용품 전달,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 겨자씨 헌금이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고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주로 KKC (키르기스스탄한국대학)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가르쳐주는 한국 무용교실, 한국요리교실, 그리고 수공예교실 위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비록 말로서 말씀을 선포할 수는 없었지만 찬양과 워십 댄스로 복음을 전하고, 불고기 등 음식을 함께 만들고 뜨개질을 가르치고 함께하며 마음과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세계청년수련회에 참

석하여 케이팝(K-Pop)을 소개하고 한국 전통차를 함께 하며 신앙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을 하였고, 반종교개혁지와 헝가리 개혁신교회 및 데브레첸신학교 방문, 부다페스트 한인교회에서의 예배, 그리고 아우슈비츠를 방문하며 신앙의 지평이 넓어짐을 경험하였습니다.

청년부에서 주관하는 Z국의 비전트립은 북한 탈북청소년을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언젠가 북한 선교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그곳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통일선교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케냐의 비전트립은 많은 성도들이 신청하였으나, 안전상의 이유로 안타깝게도 취소되어 태권도복 등 성도들이 후원한 물품을 전달하는 것으로 비전트립을 대신하였습니다.

비전트립을 빛낸 값진 후원들

비전트립은 여행에 참여하는 성도들만의 비전트립이 아닙니다. 2015년 비전트립에도 정기적인 헌금 외에도, 성도들이 물품후원 창구를 통하여 약 2,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후원하였습니다. 성도들의 후원 물품을 현지에서 전달하면서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후원하신 분들에게 얼마나 값진 후원을 하셨는지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비전트립을 위해 직접 현지에 가서 섬기신 분들과, 헌금과 물품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기도로 중보해 주신 분들, 그리고 수개월 동안 꼼꼼하게 열정적으로 비전트립을 준비해 주신 해외선교분과위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년 주님의 교회 해외비전트립을 통하여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각 사역지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가 30배, 60배, 백배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기원합니다.

박중순 장로/해외선교분과 위원장

2015 비전트립 보고서

베트남

베트남 복음화의 기초를 닦는 한 걸음

베트남은 한반도 1.5배 정도의 크기이며 인구는 9천만 명을 넘어 1억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국민의 평균 연령이 29세로 매우 젊은 나라이다. 54개의 소수종족이 있으며 그 중 비엣족(킨족이라고도 함) 하나의 종족이 86.2%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고, 아직도 80%가 불교도로서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선교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생각만 하였던 비지너리의 삶을 실천하고 싶어 교회에서 진행하는 비전트립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가하였다. 세 번째 방문하는 베트남이지만 여전히 낯설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가했다. 그러나 선교현장의 땅을 직접 밟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고 선교 현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까 하는 기대감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기에 감사와 평안함으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베트남 비전트립은 해외선교분과 박종순 장로님, 심홍섭 목사님, 국제교육선교센터 최봉도 목사님 등 총 30인의 팀원이 7월 29일부터 8월 3일까지의 4박 6일의 일정으로 호치민 서남부의 빈롱성 봉림군 편안롱면을 중심으로 의료, 집짓기 및 어린이 사역을 하였다. 올해에도 의료사역에는 작년과 같이 베트남 현지의 Dr. Minh과 두분의 베트남 의사선생님이 참여하여 주었고 선교사님 가족 및 통역도우미 등 총 45인의 대규모 팀이 사역을 감당하였다.

7월29일 첫날 아침 6시에 집합, 공항으로 향하였다. 일정보다 약간 늦어지는 가운데 호치민에 도착하여 최화평 선교사님의 인도하에 베트남복음성회 남부총회를 방문한 후 총회장님 및 베트남 목사님들과 인사와 선물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 목사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베트남이 믿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목사님들

과 교제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한 후 호치민을 출발하여 빈롱성 숙소로 이동하였다.

다음날 아침 차안에서 이동하면서 심홍섭 목사님의 경건의 시간에 말씀의 인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였다. 편안롱면에 방문하여 지역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과 인사를 나누고 이틀에 걸친 사역을 시작하였다. 사역은 두팀으로 나뉘어져서 진행되었는데 한팀은 편안롱면 보건소에서 의료사역과 어린이사역을, 그리고 다른 한팀은 집짓기 사역으로 주로 이미 건축된 집에 페인트칠을 하였다. 의료사역은 접수 및 건강진단, 내과, 부인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초음파), 약국으로 나누어 약 400명의 주민에게 진료와 투약을 하였다. 그리고 또한 진료를 위해 방문한 어린이들에게 예쁜 풍선과 사탕을 선물하였다. 집짓기 팀은 이틀 동안 세 채의 집에 페인트칠을 마무리하고 헌정식을 한 후 빈턴현으로 이동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우리교회 성도 한분이 후원해 주신 교과서를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공산국가이다 보니 복음을 직접 전할 기회는 없어 의료사역, 집짓기사역 및 교과서 증정 등을 통하여 베트남 주민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고 이러한 사역이 나중에 거대한 베트남의 복음화에 기초가 되길 기대하며 기도한다.

베트남은 경제적으로는 한국의 70~80년대와 참으로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학교안에서 선물을 받는 아이들의 톡톡튀는 눈망울들이 지금도 눈에 가득하게 떠오른다. 우리에게도 봉사의 기회로 다가가는 기쁨도 있었지만 현지에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눈망울과 현지인들의 순수한 마음은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왔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돕고 나누어 주는 위치에 서다 보면 현지인에 대한 사랑에 우월한 마음이 생길까 두렵고 조심스러운 마음이 든다. 주님처럼 겸손과 철저한 헌신을



위해 깨어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토요일에는 빈롱성내 유일한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고아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었다. 방문 내내 복지센터의 어려운 환경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으나 최선교사님께서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면서 마음의 짐을 크게 덜게 되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 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란 말씀을 떠올리며 이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 잘 성장하기를 기도하였다.

이어서 우리 겨자씨가 후원하는 돈짜우교회를 방문하였다. 올해 짜빈성 정부로부터 드디어 공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교회를 섬기는 꾸옥 전도사의 사택 건축비를 헌금하였고, 교우들의 사랑이 담긴 성경책과 찬송가, 그리고 약 170명의 어린이에게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학용품 선물을 전달하였다. 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맛있게 먹고 호치민으로 출발하면서 이 교회가 불교 사원으로 둘러싸인 그 지역 복음화의 교두보가 되기를 소망하였다.

주일날 현지 한인교회에서 접한 김덕규 선교사님의 고린도전서 1장17절~18절 말씀은 내게 직접 주시는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다. “17 그리스도

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말씀만 붙잡고 오랜 시간을 경주해온 김덕규 선교사 내외분, 최화평, 김사랑 선교사 내외분을 직접 뵙고 교제하고 현지의 사역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진정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 지기를 소원해 본다.

선교란 주님 앞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련의 과정일진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모두 주님의 팀으로서 친해졌고 비전트립 기간 내내 주님의 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동참하였다. 선교사님이 사역 기간 내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다시 한 번 멀리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금번 비전트립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교우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비전트립을 통해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증인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보냄 받은 사명을 더욱 확실히 감당할 것을 다짐해보면서 더욱 많은 분들이 비전트립에 참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류덕하 집사/동남아팀

케냐

마음으로 함께 한 케냐 사역지



몇 차례의 테러가 있었습니다.

사역지로부터는 거리가 좀 되었지만 그래도 안전문제가 거론되어 2013년 케냐 비전트립 이후 2년 동안 아프리카 팀의 비전트립은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한번뿐인 기회가 2년 연속 취소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염려와 기도 속에서 여러 차례의 회의가 반복되었지만, 보다 책임감 있는 사역을 위해서 2016년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비전트립에 함께 참여했던 12명의 팀원들 중 대부분이 계속해서 참여할 뜻을 가졌기에, 이후 2년 동안 열심과 관심을 가지고 케냐를 돕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직접 케냐에 가지 못해 안타까운 한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순종을 배우는 시간이었었고, 또한 우리가 가지 못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케냐 사역지 중 한 곳인, 나록 남자고아원에 봉사자들을 위한 숙소가 건축되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 팀 방문 당시 아이들을 위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숙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추진했던 사역입니다. 숙소가 마련되면 컴퓨터, 미술, 영어, 체육 등을 가르치

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아이들에게 배움과 문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마침내 2015년 3월, 나록 남자고아원 앞마당에 2층 규모의 작은 건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의 기획 의도에 딱 들어맞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청년 3명(김주원, 백승진, 최진형)이 자원하여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봉사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명의 청년들은 케냐의 불편한 생활을 마다하지 않고 2015년 7월 7일 출국하여, 지난 8월 초 건강하게 귀국하였습니다.

이들의 태권도 강습에 필요한 태권

도복 65벌은 아프리카 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약 35벌은 교회 유, 소년부 학생들에게 기증을 받아 세탁하고 부족한 30벌은 새로 구입해서 보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년부에서 사용하지 않는 찬양가운을 기증받아 깨끗하게 세탁한 후, 지역의 찬양대회를 준비하는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보냈습니다. 가운을 입고 찬양대회에 참여한 아이들이 단연 돋보였다는 선교사님의 후기와 사진은 팀원 모두에게 커다란 감동과 보람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팀은 비전트립을 가지 못하는 동안에도 정기적으로 모여 중보하고 케냐의 소식을 나누면서 그때그

때 도울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2014년 10월에는 통일선교바자회에 참여, 케냐 부스를 운영하여 기증받은 아프리카 기념품과 팀에서 직접 제작한 가족공예품 등을 판매하여 수익금의 10%는 교회에 선교적립금으로, 나머지는 케냐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고아원에 아픈 친구들이 생길 때는 긴급 중보는 물론, SNS를 통해 사진과 글로 응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세심한 관심 표현도 잊지 않습니다.

팀이 가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은 의외로 많았습니다. 가지 못하는 대신 두 배 세 배 더해진 관심과 사랑은 그곳에 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만큼이나 뜨거웠던 가뭄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라면 그 또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올해에도 우리가 가서 직접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들



은 그런 우리의 손을 반가이 잡아 주었습니다.

2016년에는 꼭 가서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도 기다리고 그들도 기다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아프리카 팀이 비전트립 팀으로 다시 한번 활약할 수 있는 2016년 비전트립을 기다립니다.

김강산 집사/아프리카팀



2015 비전트립 보고서

키르기즈스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를 느끼길 원한다면 선교현장이 단연 으뜸이라 생각한다. 이번에도 키르기즈스탄 비전트립을 다녀온 팀원들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모일 때 마다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는 은혜의 감동을 나누곤 한다.

2015년 6월 28일 주일 2부예배 때 비장한 각오로 비전트립 파송식을 하고 팀원들은 선교지로 갈 집을 챙겨서 7박 9일의 여정을 향해 출발했다.

먼저 키르기즈스탄은 어떤 나라인지 알아두면 그 나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중앙아시아북부에 위치하고 수도는 비슈케크, 인구는 약 560만명에 면적은 약 20만평방키로미터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1,300여달러이고 종교는 이슬람교 75%, 러시아 정교 20%인 이슬람국가이며 구소련으로부터 1991년 8월 31일 독립했다. 비록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옛 강대국인 소련의 영향으로 발레와 음악 미술 등 나름대로 문화를 향유하고 있으며 자존심이 매우 강한 국민이다.

이번 비전트립팀의 사역은 KKC(키르기즈스탄한국대학)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를 소개하고 가르쳐주는 한국 무용교실 한국요리교실 수공예교실 세 강좌로 준비했다. 한국무용교실은 스트레칭, 한국무용기본동작, 부채춤 작품 등 5강으로 강사와 스태프 2명으로 구성했다. 한국요리교실은 잡채요리, 불고기와 냉면, 떡볶이와 김밥, 비빔밥, 삼계탕 등 5강으로 강사와 4명의 스태프로 구성했고, 수공예교실은 원피스형 동그라미 꽃수세미와 위머 겹 털모자 뜨개질 그리고 비즈공예 등 5강으로 강사와 스태프 3명으로 구성했다.

첫째 날 인천공항에서 타시켄트로, 타시켄트에서 환승하여 비슈케크로 6시간여 비행으로 비슈케크공항에 도착하니 윤영수 선교사와 태권도 제자들이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었다.

둘째 날, 오전에는 KKC(키르기즈스탄 한국대학)로 이동해서 한국에서

유학하고 한국을 잘 아시는 학장님의 학교 소개로 학교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 키르기즈에 한국이름을 내건 대학이 있다는 게 참으로 자랑스러웠다. 오후에는 각 강의별로 학교에서 선발한 학생들과 오리엔테이션 및 인사를 하고 서로 친밀감을 쌓아가면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했다.

셋째날, 40도가 오르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병풍처럼 펼쳐진 만년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섭리에 대한 감탄이 저절로 나왔다. 학교에서 오전 오후로 두 강의를 시작 했는데 한국무용교실에서는 무용의 기본동작과 부채춤을 가르치면서 꽃처럼 예쁜 아이들과 소통하며 서로 기뻐하며 구슬땀을 흘리면서 친해졌다. 한국요리교실에서는 오전에는 불고기를 오후에는 떡볶이와 김밥을 가르쳤는데 배우는 학생들이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임하므로 선생님들은 딸에게 음식 조리법을 알려 주듯 정성을 다해 가르쳐 주며 친해졌다.

수공예 교실에서는 지난 5년 동안 계속 섬겨왔던 김정애 선생님이 현지선교사님과 현지인과 학생들에게 털모자와 수세미 뜨개질을 가르쳤다.

넷째날, 오전 오후로 각 파트별 4, 5강 강좌가 시작됐다. 한국무용교실은 부채춤 완성을 위해서 땀을 흘렸다. 한국요리교실에서는 삼계탕과 비빔밥을 강의하였다. 유정아 요리선생님의 김치가 인기가 아주 좋아서 4번씩이나 반복되었다.

다섯째 날, 아담한 학교 앞마당에 평가회 및 축제를 위한 장이 꾸며졌다. 부채춤을 배운 학생들은 예쁜 무용복으로 갈아입고 마지막 리허설을 하고 요리팀은 제비뽑기로 5개 팀이 각각 음식을 만들어 예쁘게 차려놓고 수공예팀은 그동안 만든 수세미와 비즈를 잘 전시해 놓았다. KKC 총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과 그리고 키르기즈스탄을 섬기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시식을 하고 평가해서 맛있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해주었다.

이어서 내외빈이 모인 앞에서 학생



들의 공연이 펼쳐졌다. 사물놀이팀의 흥겨운 소리로 축제가 시작되고 이어서 나비처럼 너울거리며 춤을 추는 부채춤공연과 강인하고 절도 있는 태권도팀의 시범이 학교 앞마당에 메아리쳤다. 그리고 우리 비전트립팀이 준비한 위십, 이슬람국가여서 찬양가사는 안된다고 해서 부르지 못할 뻔했던 찬양,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서 찬양을 선포하게 하셨다. 축제와 선포가 끝나고 준비한 선물을 학생들과 선교사님과 KKC 학교 측에 전달하고 또 학교 측에서는 저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그동안 정이 들어서 서로 부둥켜안고 울면서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오후에는 새롭게 개관한 태권도 도장을 방문하고 김미숙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카이노스 카이로스 메리치과를 방문해서 사역현장을 살펴보고 위로하였다.

여섯째 날 키르기즈스탄의 명소 이스쿨호수를 향했다. 비슈케크에서 약 4시간 거리에 있는 이스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호수 같았다. 짙은 코발트색과 광활하게 펼쳐진 호수가 우리의 마음을 탁 트이게하는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 일곱째 날은 이수쿨에서 돌아와 키르기즈스탄을 더 알기위하여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수강했던 학생들을 초청해서 저녁식사를 같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

여덟째 날, 한인교회인 베라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밴드에 맞춰

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현지인들과 함께 드린 예배가 참 은혜로웠다. 비전트립팀이 준비한 위십과 북춤과 부채춤을 관람하면서 은혜로 열광하고 환호해 주면서 베라 교회 목사님도 연세 드신 성도님들에게 이런 위십팀을 만들면 좋겠다는 도전을 받으셨다 한다. 목사님의 설교를 현지인의 통역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아 보일것다 생각했다. 베라 교회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공항으로 향했다.

이번 키르기즈스탄 비전트립을 통해서 느낀 점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슬람국가에서 젊은 청소년들과 직접 만나 가르쳐 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발견한 것이다. 그 접촉점은 KKC(키르기즈스탄 한국대학)이었다. 그 도구를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사역이 진행된다면 이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거룩한 도전을 받았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린다.

정준호 안수집사/키르기즈스탄팀

헝가리

교회 개혁의 역사 속으로

헝가리 비전트립은 팀장인 박성열 집사님과 14명의 선교대원이 참여했습니다. 7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9박 10일의 기간동안 정채화 선교사님과 함께 헝가리 개혁교회 청년수련회 및 종교개혁지 답사 등의 다양한 일정들을 소화했습니다. 이번 선교는 신앙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현장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1. 헝가리 개혁교회 청년수련회 참가

헝가리 선교팀은 첫 번째 일정으로 헝가리 개혁교회에서 주관하는 청년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청년 수련회는 2년마다 열리는데, 매 회 3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모여 신앙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헝가리가 공산국가였던 시절 수련회가 중단되었다가 1989년 이후 다시 재개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헝가리 뿐만 아니라 주변 유럽국가와 일부 아시아에서 온 청년들도 다수 이번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한국에서 온 우리 선교팀을 위한 부스가 마련되었습니다. 부스에서 우리팀은 K-pop 소

개, 전통차 소개 등을 통해 신앙의 교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국의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폭넓은 신앙을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경험을 통해서, 신앙의 지평을 확대해 갈 수 있었습니다.

2. 반종교개혁지 답사

두 번째 일정은 반종교개혁지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헝가리를 떠나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도착했습니다. 이 곳은 반-종교개혁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종교개혁의 역사는 아픔의 시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앙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쟁과 핍박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역사로 유럽 전역은 슬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 곳에서는 종교개혁에 대항하여 가톨릭 세력의 확장이 일어났습니다. 합스부르크 왕조는 정치적인 이유로 가톨릭 교회를 지원했고, 개인의 욕망으로 인해 무수한 살육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궁에서 개인의 야욕과 신앙에 대한 잘못된 관점으로 비참한 역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3. 개혁교회 및 데브레첸 신학교 방문
헝가리 개혁교회는 칼뱅의 장로교 전통이 오랜시간 동안 이어져 온 곳입니다. 공산권의 박해의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온 가운데, 그 분들은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 곳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재, 헝가리 개혁교회는 한국교회와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파를 넘어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헝가리는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져서 개혁교회 산하의 신학교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저희는 가장 규모가 크고 유서 깊은 데브레첸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16세기말 데브레첸 지역 95프로에 해당하는 인구가 칼뱅 장로교를 따르는 신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전체 도시지역의 구조가 데브레첸 신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다시금 그들의 신앙의 저력과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4. 부다페스트장로교회 방문

26일 주일에는 정채화선교사님이 시무하시는 부다페스트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헝가리 개혁교회 협회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인교회에서는 헝가리 교민으로 살고 계신 분들과 주재원 분들 20여명이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준비해간 선물을 나누고 하나 되어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부다페스트장로교회 어린이들을 위해 작은 무지개 잔치를 진행했습니다. 달란트 시장을 열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시간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5. 평화의 순례 - 아우슈비츠 방문

폴란드는 헝가리에서 8시간 정도 이동한 후에야 도착할 수 있는 제법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장 전에 팀원 전체가 한적한 곳에서 평화를 위한 예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사님의 인도로 아우슈비츠에 대한 안타까운 역사와 이를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찬양을 부르며, 그 땅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저희가 방문하는 날, 수용소 지역의 날씨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가 가운데 잔인한 살육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금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헝가리 선교의 가장 큰 은혜라고 한다면 준비과정부터 '보고 깨닫는' 선교와 '참여하는' 선교가 잘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종교개혁과 장로교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오감으로 느끼며 그 향취를 느끼기도 하며, 청년수련회와 한인교회 무지개 잔치들을 통해 현지의 신앙 활동에 참여하는 면도 지니고 있습니다. 선교의 다양성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었음 고백합니다. 2년 뒤에는 종교개혁 600주년을 맞이하여 헝가리 개혁교회 청년 수련회가 보다 풍성하게 준비된다고 합니다. 성도분들과, 특히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신앙의 지평이 활짝 열리는 시간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헝가리 선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서, 주님의교회의 선교의 지평이 넓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정채화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금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교회와 성도분들에게 깊은 감사와 말씀을 전합니다.

김삼열 전도사/청년부

Z국

조국 해방과 분단 70주년에 다녀온 통일

청년부는 올해로 4년째 북녘땅과 통일을 중보하기 위해 Z국으로 비전트립을 떠났습니다. 가장 처음 Z국 교회에 들어서 정면에 걸린 십자가를 보았을 때, 이렇게 복음의 전파가 자유롭지 못한 황폐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곳에는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어 Z국에 왔지만 인신매매를 당해 한족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여집사님들과 그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사랑하고 바라보며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 아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처음 보는 우리들에게 예쁜 미소와 함께 팔짱끼고 손잡으며, 서툴고 부족함이 많음에도 잘 따라주고 함께해준 아이들의 얼굴이 지금도 어른거립니다. 한 프로그램 중 우비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아이가 '예수님'이라는 비에 적혀지는 포도가 되고 싶다고 그림을 설명하는 것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교회 목사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이곳의 아이들에게 하는 모든 일들은 북녘 땅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 것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훗날 북녘 땅에 들어가 그곳의 아이들에게 그대로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이 한명 한명이 하나님께서 통일을 위해 사용하실 귀한 열쇠이자 다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주일에 배를 하며 집사님들과 함께 찬양을 할 때는 그분들과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해서, 하지만 그곳이 한반도가 아닌 Z국이라는 사실이 애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찬양을 통한 고백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강 건너 손에 닿을 듯 가깝지만 결코 갈 수 없는 북녘 땅을 바라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소망이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척박하고 황폐한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계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일들만으로도 머릿속이 넘쳐나고 기도제목들이 가득해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저앉지 않고 더 넓은 곳, 더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선한 싸움에 동



참하기고자 기도해야겠다는 결단하였습니다.

비전트립 기간 동안, 마치 아빠 손을 잡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아빠의 손끝이 향하는 곳을 함께 바라보는 아이처럼, 저는 제 손을 잡고 인도하여 주시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헤림아, 내가 너만큼 사랑하는 저 땅의 너와 같은 민족이, 하나의 땅이었던 그 곳이 저렇게 아파 신음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역사가 그 아픔의 증거들이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한 팀원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한 소망과 비전, 기도제목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부어주셨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저 안타까웠을 뿐, 현실적인 통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회의론을 가지고 있었고, 통일 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 걱정부터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런 마음들을 품게 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일은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통일의 비전이 희석되지 않도록, 지금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은혜로운 비전트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혜림/청년부

정신학원에 갇힌 한국 기독교의 역사 23

신문으로 보는 정신여학교

생도 삼백 명이 월미도와 인천 관측소를 견학하고 당일 귀교하였다.(1921. 4. 25. 「조선일보」)
바자회가 개최되었다. 학생들이 손수 만든 과일, 약과, 인절미 등을 만들어 판다고 한다. 수익금은 학교의 교사 건축비로 보충할 예정이다.(1923. 12. 15. 「조선일보」)
현재 본과 4학년 보습과 2학년으로 학생이 1백 40명, 선생은 남자 여덟, 여자 셋으로 일본인 하나, 서양인 세분으로 이화학(理化學)과 음악을 힘쓰는 학교이다.(1925. 1. 31. 「조선일보」)
기독교청년회 주최 전조선여자 하령

회가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기숙사 전부를 빌려 개최.(1925. 8. 21. 「조선일보」)
총독부가 학교를 탄압하는 것을 반발하여 동맹휴학에 돌입.(1925. 11. 30. 「조선일보」)
신입생 모집인원은 1학년 60명. 지원자는 만 12세 이상 20세 이하의 여자 6년제 보통학교 졸업자나 심상소학교 졸업자(1927. 2. 19. 「조선일보」)
3월 22일 오후 7시 30분에 연동 예배당에서 제21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졸업생수는 12명. 입학생수가 졸업생수에 비해 적은 원인은 학부

형들의 형편과 총독부의 학교 탄압 때문이다.(1927. 3. 24. 「동아일보」)
광주학생사건이 경성에 파급되어 시내에서도 정신여학교생 130명을 포함해서 남녀 12개 교에서 일제히 동요가 일어났다. 이에 3백 여 명의 학생들이 경찰에 검거되었다.(1930. 1. 16. 「중외일보」)
미북장로회 선교본부 정신여학교 1940년 봄부터 폐교 결정(1938. 6. 26. 「조선일보」, 1938. 6. 29. 「매일신보」)
- 일제하 정신여학교 관련 신문기사 120여건

이희천 정신여교 교장



1936년 3,4학년 금강산 수학여행

창립27주년기념 특집기획 : 함글함글 지상토론 “주님의교회, 미래를 생각한다” 2

교회사적 의미로 본 주님의교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선한 싸움 계속되길

창립27주년기념 특집기획 “주님의교회, 미래를 생각한다”, 그 두 번째 글은 독일에서 교회사를 전공한 최영재 박사가 기고했습니다.

이 글, 또는 다음 주제에 대한 여러 의견을 보내주시면 다음호에 수록하여 같이 생각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 구성원 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 대해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의견과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글함글

발제 순서

1. 주님의교회 정체성의 내면

임기제, 무기명헌금, 50대 50, 교회건물의 무소유, 청소년 사역 등 주님의교회의 제도로 표현된 정체성에 대한 배경사, 철학, 정신, 신학적 타당성 등을 분석해 봅니다.

2. 교회사적 의미로 본 주님의교회

한국교회사를 배경으로 주님의교회의 형성과정과 영향 관계를 통사적으로 살펴봅니다.

3. 교회 안에서 본 주님의교회

주님의교회 내부에서 진행되는 여러 상황, 관행, 공동체의 실천적 일상 등을 정체성에 비추어 살펴봅니다.

4. 교회 밖에서 본 주님의교회

교회 밖 누군가가 바라보는 주님의교회, 즉 인접교회, 교단, 학교 등과의 관계에서 주님의교회의 의미와 평가에 대해 살펴봅니다.

5. 사회적 공간에서의 주님의교회

한국 당대 사회와의 관계에서 바라본 주님의교회의 역할과 과제를 알아봅니다.

6. 주님의교회의 바람직한 미래

이런 여러 상황과 관점을 배경으로, 주님의교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향해야 할 미래를 여러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한국교회의 급성장과 부작용

1884년 개신교선교사가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딛은 이래로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을 맞이하기 전까지 한국교회는 “어리고 작은 나무”였다. 하지만 해방 이후 1960-1980년대에 급성장한 교회는 많은 해외선교사를 파송하는 등 세계교회에 기여하는 “잎이 무성한 거목”으로 자랐다. 한국교회의 급성장은 세계교회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이었다.

한국교회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다. 1960년대의 민족복음화 운동, 1970년대 대규모 초교파적 전도집회와 부흥회들, 맥가브란(Donald McGavran)과 와그너(Peter Wagner)의 교회성장학과 로버트 쉐러(Robert Schuller)목사의 긍정적 사교의 목회이론의 도입, 그로 인하여 생겨난 수많은 기도회와 평신도 성경공부와 제자훈련과정들, 학원선교단체로 대표되는 “교회와 함께 하는” 운동인 파라처치 운동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들이 한국교회를 강하고 활기있는 교회로 만들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성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낳았다. 이 시기 한국교회는 남북분단과 개발독재와 산업화로 야기되는 부조리와 문제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그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욕구불만을 해소하는 “심리적 치료적” 기제의 역할을 했다. 교회는 섬김과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기 보다는 신앙을 물질적 성공이나 소원성취와 연결시켜 설교했으며, 인간의 욕망에 대해 경고하고 세속적 가치관을 비판하기 보다는 3박자 구원론과 같은 성공추구와 조화될 수 있는 설교가 유행했다. 경제적 차원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들을 위로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는 적극적인 사고와 성공의 복음을 설교하고, 신앙을 통하여 물

질적 축복을 약속하는 풍요의 복음을 전한 교회일수록 더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성장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성장을 뒷받침하던 사회적 환경이 바뀌자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오히려 감소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625전쟁 이후 지속된 한국 기독교의 양적인 성장세는 1960년대 들면서 크게 증가하다가 1970년대 후반에 정점에 이른 후 1980년대에는 둔화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중단되었다.”(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Ⅲ. 해방 이후 20세기말까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117쪽) 주님의교회는 한국교회의 양적성장이 둔화되던 1980년대 후반에 탄생하였다.

사회변혁의 주체였던 초기 한국교회

주님의교회의 창립정신에는 이러한 당시 한국교회의 역사적 상황이 깔려 있다. 주일헌금의 50%는 대외적인 선교와 구제에 각각 50%를 사용한다는 소위 ‘50대50’ 원칙은 당시 한국교회에서는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이것은 1960-80년대의 한국교회를 성장하게 만든 성공과 번영의 신앙과 개교회주의에 대한 하나의 반성으로 여겨진다.

당시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개별 교회의 양적인 성장에 몰두해 있었다. 교회마다 교인수와 헌금액을 늘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것으로 교회의 성장을 평가했다. 교회의 성장을 드러내기 위해 대규모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의 신앙을 수량화하여 수치로 등급화하였다. 결국 교회는 자신에게 매몰되어 이웃과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기 힘들었으며, 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가진 전체 역량과 대조해볼 때 거의 미미할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님의교회는 창립 때부터 선교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주의를 기울였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으로

재정의 50%를 이 일을 위해 사용하도록 명문화하였다. 주님의교회의 이러한 태도는 한국교회사에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다. 이미 1900년대 초 초기 한국교회는 봉건적 의식과 관습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고, 백성을 계몽하고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 싸웠다. 초기 한국교회는 민족과 나라에 무관심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활동했다. 사회와 민족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는 한국교회의 전통이 주님의교회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주님의교회의 전통이 1980년대 한국에 들어온 신복음주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이해,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피안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라는 이해와 연결된다면, 신앙을 좀 더 폭넓은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 교회 전통에서 비롯한 임기제

‘주님의교회’라는 이름에 나타난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것이 ‘임기제’이다. 장로 임기제는 교회의 역사 속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1541년 제2차 제네바 종교개혁에서 “의회가 이들(장로 필자 주)의 연임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의 의무를 신실하게 수행해 내면 그렇게 자주 교체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장로직을 종신직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장로교가 처음으로 시작된 스코틀랜드의 제2교회치리서에서는 장로를 종신 안수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1578). 이후 전반적인 개혁교회의 전통은 “가정과 생업이 있는 치리장로의 경우 직분을 오랫동안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고려, 전횡을 막기 위한 정치적 견제와 균형의 기능, 다수

목회 칼럼

기다려주는 마음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분다. 교회도 이제 하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이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하반기를 준비해야 할까? 생각하다, 누가 복음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게 되고, 지난 수요일엔 “다시 읽은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도 나누었다.

특별히 본문을 통해 형과 동생뿐 아니라 또 한명의 탕자인 아버지 즉 탕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 탕자라니, 이 무슨 불경건한 말인가! 탕자라는 말 뜻 속에는 ‘낭비하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아버지는 정말 탕

자다. 아버지는 아낌없이 두 자녀를 향해 재물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사랑을 낭비하고, 신뢰를 낭비하신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낭비가 옳지 않고, 정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낭비가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낭비가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게 된다는 것이다.

현대는 효율의 시대이다. 낭비를 싫어한다. 시간도, 물질도, 사랑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은 듯하다. 필요한 낭비, 꼭 해야 하는 낭비가 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보여준 낭비이다. 낭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

아이러니하게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사랑은 변질되는 것을 본다. 효율이란 자세히 보면 나를 향한 사랑의 극대화이기 때문이다. 낭비할 때 사랑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사랑은 기꺼이 낭비하는 것이다. 나는 낭비하시는 하나님께 참 좋다. 왜냐하면 그분의 낭비하심 때문에 어찌면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기꺼이 나도 하나님처럼 낭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이 낭비가 여전히 쉽지 않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길에 들어섰다고 다짐하면 서도 끊임없이 나의 욕심이 드러난

다. 하나를 포기하면 또 다른 하나가 드러나고, 힘들게 다시 그것을 포기하면, 또 다른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본다. 그러면서 자꾸만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낭비하기를 거부한다.

하반기에는 기꺼이 낭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늘 아버지께서 하신 낭비를 나 또한 기꺼이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다시금 그 길을 가보련다. 그리하여 한 생명이라도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본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도 탕자이신 아버지를 따라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기도해 본다.

장수현 목사

의 교인들이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꾸준히 개발하기 위해서 종신직은 불합리한 제도”(양낙홍 교수)라는 이유를 들어서 장로직은 임기제로 시행해 왔다. 그리하여 미국의 장로교와 유럽의 개혁신교들은 1-5년 정도의 임기제를 시행하고 있다. 초창기 한국교회에서도 오늘날과 같은 장로종신제가 아니라 윤번시무제, 즉 임직식은 한 번 하지만 시무기간과 휴무기간이 구별되어 있는 제도였다. 고려파교회에서는 1981년까지 장로의 윤번제를 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장로직을 감당하던 제도가 지금의 종신제로 바뀐 것이다. 종신제로 바뀌면서 앞에서 우려했던 전횡과 같은 부작용이 등장하게 되었다. 주님의교회는 특정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전횡을 막고 교회의 주인이 주님임을 확고히 하기 위해 임기제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임기제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목회자 세습 문제와 교권주의를 예방하고 교회의 직분이 봉사직이라는 것을 확립하는데 유익하다는 점들이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1991년 8월에 주님

의교회가 임기제를 시행한 이후 동안교회(예장통합), 잠실중앙교회(기장), 계명성교회(기장), 부산새중앙교회, 갈릴리교회(예장통합), 향린교회(기장) 등 여러 교회에서 각 교회의 사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15회 소망신학포럼에서는 모든 직분의 임기제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2012. 4. 16). 아직 이론의 여지가 분분하지만, 교단차원에서 장로와 목사의 임기제를 논의하는 곳도 생기기 시작했고, 심지어 합동총회와 같은 보수적인 교단에서조차 임기제에 대하여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다.(2015. 3. 20, 총회정책연구소 2차 영남지역 공청회)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주님의교회를 대변하는 ‘예배당의 무소유’는 개혁신교회의 교회관을 바르게 부각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교회란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며, 교회의 표징은 성례(세례와 성만찬)와 말씀 선포이다. 그렇기에 종교개혁이후로 장로교와 개혁신교회는 교회 내에 불필요한 장식들을 제거했고, 단순

하고 소박한 예배당을 가졌다. 심지어 프랑스의 개혁신교인 위그노들의 예배당은 밖에서 보아서 다른 건물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단순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60-80년대 급성장하면서 경제력이 생기게 되자, 대형예배당을 건축하고 예배당 내부와 찬양대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꾸미기 시작했다. 마치 개혁신교회의 전통을 잊어버린 듯이 교회건축에 열을 올렸다. 게다가 한국식도 아니고 서양식도 아닌 국적불명의 교회 건축물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대형교회의 이러한 태도가 중소교회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1998년 외환위기(IMF 외환위기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 몰린 은행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교회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은행이 매주 규칙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교회를 고객으로 삼아 막대한 자금을 대출하기 시작하자, 여러 중소교회들은 대형교회들을 본받아 그것으로 예배당 건축을 추진했다. 15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 교인수의 감소와 잘못된 예측으로 교회들이 건축비를 제때에 갚지 못하게

되어, 다 지은 교회건물을 이단과 다른 종파들에 넘겨야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종종 벌어지고 있다. 현재 교인수의 감소와 교회 구성원들의 연령비율을 살펴본다면, 이제 예배당을 대형으로 짓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주님의교회처럼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예배당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면 보다 더 건전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진다.

주님께 응답 위한 고민과 노력 계속되길
이처럼 주님의교회가 한국교회사에 여러 가지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리고 주님의교회는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교회 중의 하나이다. 앞으로도 주님의교회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바르게 응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최영재 목사

영어캠프 후기

삶을 변화시킨 킹덤비전영어캠프



며칠 동안 계속 귓속에 맴도는 가사.
Your[God's] love is spinning me round
and round.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뱅글뱅글
돌게 해.
Yeah, it's turning me upside down.
오예~, 나를 뒤집어 놓네.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주님의교회 킹덤비전영어캠프
(Kingdom Vision English Camp)가 작년
에 이어 올해도 8월 3일부터 13일까
지 2주간의 일정으로 52명의 학생
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영어캠프의 주제는 “신비로
운 동물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
랑(Weird Animals: Where Jesus' Love Is
One of a Kind)”이었고, 예수님은 우
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특별하게,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
며,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해주셨다
는 것을 가르쳐 주는 시간이었다.
산타 바바라(Santa Barbara) 캘리포

니아에 위치한 풋스텝스(Footsteps)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들은 영어뿐
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창작활동,
요리와 문화,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을 가르쳐 주었다. 킹덤비전영어캠
프는 매년 풋스텝스선교회를 초청
하여 진행하는데, 올해 우리와 함
께한 교사진들은 4명의 전직교사
그리고 9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되
었다. 이 13명의 교사들과 함께 어
느덧 학생들의 할머니가 되어버린
팀장인 샬롯(Charlotte)도 함께했다.
주님의교회 킹덤비전영어캠프가
귀하고 특별한 이유는 이 캠프의
초점이 단지 영어를 가르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주님의교회 영어캠프 이름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캠프의 주된
목적은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붙어넣는 것이다. 이
영어캠프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은
영어도 배우고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 박찬 전도사/영역사역부

알립니다

2015년 향존직 후보 추천 투표

일시 : 8월 30일(주일) 오전 8:30~오후 3:00
장소 : 다목적 홀(지하 1층 사랑나무실 맞은편)
문의 : 최영인 안수집사(010-9251-7494)

하반기 겨자씨 인도자 수련회

일시 : 8월 30일, 9월 6일 (주일) 오후 3:30 중예배실
대상 : 겨자목, 겨자채, 겨자씨 인도자, 권찰(겨자씨원도 참석 가능)
1차(8.30) : 교구모임
2차(9.6) : 특강(주제: 참된 공동체의 모델)

교구별 금요기도회

일시 : 9월 4일 (금) 오후 8:00
장소 : 2교구(초등부실), 3교구 (3집회실), 9교구(소년부실), 10교구(자모실)

가을학기 양육클래스 개강

일시 : 9월 8일(화) ~ 11월 28일(토)
신청 : 8월 30일, 9월 6일(주일) 오전 오전 8:30~오후 2:00
접수 : 1층 로비(접수비 5,000원)
문의 : 심미숙 권사 (010-3784-7604)

예수친구사역 2학기 개강

일시 : 9월 1일(화) 오후 7:00 중예배실
문의 : 이은석 전도사(010-4417-9779)

12단계 성경공부 개강 및 추가 모집 (5단계)

개강 : 9월 16일(수) 오후 7:15 대예배실
모집 : 9월 6일(주일) 9월 16일(수) 1층 안내데스크

수요어린이영어예배 개강

일시 : 9월 2일(수) 오후 7:00 사랑나무실
문의 : 박찬 전도사 (010-3295-0858)

입교 및 세례교육

대상 : 교회 등록후 6개월 이상 된 성도
일시 : 9월 20일~10월 11일(4주) 오후 1:30~3:00 3층 초등부실
문의 : 나관주 안수집사 (010-6823-5216)

늘푸른대학 제7기 2학기 개강

개강 : 9월 1일(화) 오전 10:30 중예배실
문의 : 정원영 안수집사 (010-5339-6464)

주님의교회 25년사, 아직도 안보셨나요?



주님의교회는 1988년 6월에 창립되었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한국 교회사에 독특한 발자취를 새긴 주님의교회 25년의 역사를
담은 책이 <주님의교회 25년사>입니다. 지난 해 출간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성도가 이 책을 못 보셨다고 하여 다시 알려드립니다.
이 책을 내기 위해 들어간 노력과 가치를 도저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기에, 지금 1층 사무국이나 설만한물가 서점에서 이 귀한 책
좀 보고 싶다고 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드립니다.

함글함글

아기나들이



박민욱 아기 2015년 8월 16일 3부 예배

1.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2.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기를
3.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아빠 박성연, 엄마 하혜진 2015년 4월 19일생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